

배포일자: 2022 년 5 월 31 일

길리어드, 중구 건강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 위한 ‘행복 나눔’ 진행

-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 프로그램 ‘행복 나눔 캠페인’ 통해 기부물품 마련
- 무더운 여름철 온열질환 위험 높아진 건강취약계층 160 세대에 냉방물품 지원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대표 이승우)는 5월 31일,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어르신, 저소득층 등 건강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냉방물품 160세대분을 서울시 중구청에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길리어드가 중구청을 통해 진행한 세 번째 사회공헌활동으로, 2018년에는 중구 관내 쪽방촌에 임직원이 직접 제작한 서랍장을, 2021년에는 취약계층 및 어르신 대상의 냉방물품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지원물품은 지난 두 차례와 마찬가지로 길리어드의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활동 ‘행복 나눔’ 캠페인을 통해 마련됐다. ‘행복 나눔’ 캠페인은 길리어드 임직원의 참여를 통해 건강 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지난 2014 년부터 길리어드 본사 창립기념주간에 맞춰 매년 각기 다른 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해 진행하고 있다.

올해 ‘행복 나눔’ 캠페인 프로그램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약해진 건강을 증진하고 사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툴을 통해 임직원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공동의 노력으로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임직원 개개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나눔 실천에 동참할 수 있는 형식으로 진행해 보다 많은 참여자가 뜻깊은 선행에 함께할 수 있도록 했다. 임직원이 단독으로 또는 가족과 함께 줄넘기, 테니스, 등산, 자전거 타기 등 건강 증진 활동을 한 뒤, 사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툴인 야머(Yammer)를 활용해 활동 사진과 스토리를 포스팅하면 포스팅 1건당 냉방물품 지원세대가 1가구씩 확보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임직원과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난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 목표인 160건을 무난히 달성해 총 160세대를 위한 냉방물품 준비에 성공했다.

매년 높아지는 기온으로 인해 열사병, 열탈진과 같은 온열질환자와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물 자주 마시기, 시원하게 지내기,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등 폭염대비 건강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이에 길리어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건강취약계층의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중구청에 냉방물품을 지원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 이승우 대표는 “무더운 여름철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건강취약계층이 다가오는 폭염에 대비하여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임직원의 참여를 통해 냉방물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는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보다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기업비전인 ‘모두를 위한 건강한 세상 만들기’를 중심으로 지속가능성, 건강 형평성, 다양성 등 사회적 가치 추구 및 실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근 FCAA(Funders Concerned About AIDS)가 발간한 리포트에서 2020 년 ‘HIV/AIDS 관련 분야에서 가장 많은 기금을 모금한 기업’ 리스트에도 이름을 올리며, 길리어드가 지속해온 HIV/AIDS 기금 모금 등 인도주의적 활동이 주목받았다.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 또한 주요 간 질환인 만성 B형과 C형간염, HIV/AIDS 등 질환에 대한 인식 제고 캠페인, 예술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희망갤러리’ 등 국내 건강 증진을 위한 폭넓은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사진설명]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 임직원이 ‘2022 행복 나눔’ 캠페인에 참여하여 중구 건강취약계층 160세대를 위한 냉방물품을 마련했다.